

정읍시, 생활인구 50만 달성 캠페인

전입 유도·체류 확대·외국인 유입
인구 늘리기 3대 전략 본격 가동
전입지원금 등 맞춤 정책 홍보도

정읍시가 인구 10만명 유지와 생활인구 50만명 달성을 목표로 전입유도, 체류확대, 외국인 정주 지원 등 3대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날 '시민이 힘이다! 정읍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을 통해 ▲주민 전입을 유도하는 '정읍사랑 주소찾기' ▲사계절 체류인구를 확대하는 '정읍사랑 머무르기'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읍사랑 함께살기'를 앞서 설명한 핵심 전략을 홍보했다.

'정읍사랑 주소찾기'는 정읍에 거주하면서도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시는 전입지원금, 출생축하금, 육아수당, 대학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이 힘이다! 정읍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교 신입생 장학금, 청년 이사비용 및 이자 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 장수 어르신 축하물품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1부서 1기관 전담제'를 도입해 유관기관 방문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

'정읍사랑 머무르기'는 축제와 행사 규모 확대를 통한 체류형 관광기반 강화,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확대 등으로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정읍사랑 함께살기'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내국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기반조성 전략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인구는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의 중요한 기반이며 미래를 지킬 수 있는 핵심 요소"라면서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에 전 시민과 각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해풍고추’ 면역기능 검증연구 착수

고창식품산업연, 김치원료 공급단지 사업 연계 가능성 검증

고창군출연기관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고창맞춤형 김치소재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고창산 해풍 고춧가루의 면역기능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비교 연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연구는 수입산을 비롯한 국내 주요산지 고춧가루의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고창산 고춧가루의 차별화된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산업적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고창은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 토양과 청정 해풍이 어우러진 최적의 재배환경을 갖추고 있어 고춧가루의 저장성, 향산화 활성, 풍미 등에서 높은 품질을 자랑한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고창 고춧가루의 기능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지역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판로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전경.

특히 이번 연구는 고창군이 추진 중인 '사시사철 김치특화 산업지구'의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 기능성 검증과 산업화 인프라 구축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전망이다.

연구 성과가 향후 다양한 김치원료 품목으로 확장 적용될 경우 고창은 과학적 근거를 갖춘 김치소재 특화지구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적십자사봉사회 “치매 돌봄마을 구축”

‘치매안심이웃 플러스 사업’ 협약
다음달부터 가정 방문 일상 지원

남원시 치매안심센터가 최근 '치매안심이웃 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남원시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돌봄 공백 해소와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치매안심이웃 플러스'는 동지역 치매안심마을(노암동, 왕정동, 금동) 지역에 거주 중인 독거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남원시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해 청소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상 징



지난 10일 남원시 치매안심센터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남원시협의회 관계자들이 '치매안심이웃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후 발견 시 신속한 연계로 고립 위험을 낮추는 한편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촘촘한 치매 돌봄마을 구축

해 단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폐교된 선동초, 관광·문화·교육의 장으로

고창교육청, 폐교 활용 협의체 회의…농촌 체험 관광 시설 운영 등

고창교육지원청이 폐교된 공음면 선동초등학교를 지역 관광과 문화·교육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

고창교육청은 지난 12일 교육청, 행정 및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선동초 폐교 활용을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폐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폐교된 선동초등학교를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특히 ▲고창 정보리밭과 연계한 농촌 체험 관광

시설 운영 ▲스카우트 등 청소년활동 지원 공간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애숙 공음면장은 "선동초등학교는 지역과 학교의 기억을 이어가는 살아 있는 교육 자산"이라며 "폐교가 끝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숙경 고창교육장은 "폐교는 단순히 닫힌 공간이 아니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열린 자원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현 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시, 복지 사각 해소 ‘위기가구’ 조사

급여 중지·고독사 위험군 1552가구 소득·부양자 유무 등

정읍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중단된 가정 1552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24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급여가 중지된 1213가구와 고독사 위험군 339세대다.

시는 이들 세대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재검토해 기초생활보장제도·사회보장급여 재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지원 필요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에는 기초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포함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등 공공자원은 물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등 민간자원도 연계한다.

이와 함께 모든 조사대상 가구에는 시가 자체 제작한 '희망나눔 통통꾸러미'를 지원해 소통과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연계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세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사례관리에 포함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방치된 빈집 생활·공공시설 전환

8개 매입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생태관광 방문자센터 등 활용

남원시가 도시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빈집 매입'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지난해 시작된 이 사업에는 올해까지 총 14억원(전액 시비)이 투입된다. 활용계획이 수립된 관내 빈집을 매입 후 정비 또는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8동의 빈집이 매입 완료됐으며 이 중 2동은 리모델링을 마치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매입 빈집은 ▲생태관광 방문자센터 ▲공용주차장 ▲주민 쉼터 ▲복지 안전 주택 등 다양한 공

공시설로 시민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이는 단순 철거를 넘어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실질적 사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빈집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 공공 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전원주택신축****공장신축**
전원 리모델링**징크판넬시공****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